

2016년 12월 14일, 표선면 가시리 안인순씨 댁, 송정희 조사.
안인순(여, 1935년생, 표선면 가시리)

[제보자] 옛날에 구신이 어느 살해당한 사람인디 그날 죽은 사름 식게라. 식겐디 것도 어디 성산쪽이렌 현디. 차 탄 차 탄 보난에, 차 타네 어떤 손임이 차 타나네. 그 사름이 차를 타네 우리 집이 가켄 헨. 강 보나네. 지네 집이라. 그 저 손임네 집이 “잇이민 나 집에 강 차비 아전 오쿠다.”

헨, 가네 가네 이젠 저 강 보난에, 그 지 죽여분 사름이 그 집이 잇어. 잇이난 식게칩이 동넨 7라 잇이나네.

“아이고 무슨완 저 사름 잇어부난 무슨완 못 들어가켜.”

헨 막곳데 보난 그 사름 식게렌, 식게랏젠, 옛날엔 살인나도 좇질 못헐 때 못 허는 사름이 하낫주.

- 핵심어 : 구신, 식게칩, 살인, 성산리, 차